

마음 속 온갖 즐거운 상상들

양림미술관서 김종일 초대전 '상상타이머'
상상속 세상 표현 평면입체작 30여점 선봬



'상상타이머'

“상상이기에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연스레 어우러져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온 김종일 작가의 세번째 개인전이 양림미술관 초대전으로 열린다.
12일부터 23일까지 '상상타이머(Imaginary timer)'를 주제로 상상 속 세상을 표현한 평면입체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어린 시절 상상 속 세상을 유쾌하고도 풍부한 재미로 풀어내는 작가는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을, 하늘을 맴돌아다니거나 자유롭게 세상을 유영하는 마음 속 즐거운 상상들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김종일 작가의 작품은 '스팀 펑크 아트'로 설명된다. 공상과학 소설가 지터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 스팀 펑크 아트는 증기기관에서 따온 '스팀'과 현대사회 주류에 편승하지 않는 아웃사이더를 지칭하는 '펑크'가 결합된 용어다. 디자인,

영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명품 브랜드까지도 스팀펑크아트의 영향이 미쳤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마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해 온 작가는 초·중·고 교과서부터 웅진스쿨의 주요 교재 그림, 국토교통부 캠페인 영상, 중소기업진흥공단, SK그룹, 두산, 삼성전기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의 홍보 매체와 제품들의 이미지까지 활발한 작업들을 펼쳐왔다.
작가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일러스트 작품을 기반으로 더 확장된 작품세계를 이번 전시를 통해 펼쳐낸다.
현실 너머 상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무한한 세계로의 일탈을 꿈꾸며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상상의 세계를 재현한다.
물고기와 새, 음악과 미술, 시간과 공간, 낮과 밤, 해와 달, 멈춤과 움직임 등 상상된 이미지는 현실과 대조되는 상상의 세계로 관람자들을 끌어들이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의 모습에 상상이란 장치를 부착해 유쾌하게 환기시킨다.
평면입체 형식의 작품을 만들고 채색하



'상상타이머'

는 수많은 공정들은 모두 작가 스스로 진행했다. 그려내고 만들어가는 노동과 즐거운 상상의 사유는 세상에 내어지며 우리가 있고 지내던 순수의 시간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날 수 있게 한다.
작가는 무등미술대전, 광주시전 대상 등을 수상했고, 국전에도 입선한 바 있다. 현재 아트그룹 라이브 회원으로 활동하며, 일러스트 관련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연수 기자



지난달 진행된 아리네하우스 공연 시연회.

공연·숙박·양림동투어 즐겨요

'어쩌면 스무개의 이야기, 아리네 하우스'
극단 얼·아리, 관객 참여 즉흥공연 접수

공연 관람과 무료 숙박, 양림동 투어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광주만의 문화 예술상품 '어쩌면 스무 개의 이야기, 아리네 하우스'가 추진된다.
양림동에 있는 아리네 게스트 하우스(남구 천변좌로 428번길 6)에서 진행되는 '어쩌면 스무 개의 이야기, 아리네 하우스' 공연은 극단 얼·아리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이다.
아리네 빌딩 전체가 공연장이 되어 7개의 룸을 이동하면서 90분간 공연을 관람하고 즉흥극으로 참여할 수 있다. 7개의 공간에서의 이야기가 관객 한 명 한 명의 참여를 통해 모두 스무 개의 새로운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된다.
특이한 점은 공모를 통해 관객을 선정

한다는 것이다. 매회 공모를 통해 20명의 관객만을 선정해 함께 하며, 관객이 직접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면 공연에 참여하며 배우와 함께 공연을 완성시키는 적극적 관객 참여 공연이다.
공연은 총 5회 진행되며 △1회 6월 17일 △2회 7월 15일 △3회 9월 23일 △4회 10월 21일 △5회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이다. (공연시간 120분)
전화나 모바일을 통해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면 공연 일주일 전 함께 공연할 세부적인 내용을 전화로 공지한다. 신청 사연을 참고해 공연 관람 후 숙박도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 <https://bit.ly/2Hx7VR5>, 전화 신청 010-2659-6998. /이연수 기자

ACC서 클래식계 두 별 만난다

오늘 리처드 용재오닐 비올라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제레미 텐크와 듀오 무대



비올리스트 리처드용재오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스타 리처드 용재오닐의 비올라 리사이틀이 11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열린다.

ACC슈퍼클래식 시리즈 4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올해 국내 데뷔 15주년을 맞은 리처드 용재오닐과 조슈아 벨의 명품비로 알려진 미국의 피아니스트 제레미 텐크의 듀오 무대다.

용재오닐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는 영예에 이어 두 차례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 됐고 예술과학 아카데미 '에미상'과 미국 클래식계 최고 권위 상인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드 상'을 받은 드문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피아니스트 제레미 텐크

제레미 텐크는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우십' (2013) '에이버리 피셔' 상 (2014)을 받으며 현재 클래식계에서 가장 지적인 피아니스트로 불리고 있는 연주자다.

용재오닐의 매력적인 비올라 사운드와 함께 '환상곡'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바흐의 크로마틱

판타지와 푸가 △슈만 비올라 환상 소곡집 △슈만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이야기 그림책 △시어의 비올라 솔로 머스그 레이트 In the Still of the Night △켄지의 비올라 솔로 번치 The Three G's △한데미트 비올라 소나타 4번을 들려준다.
한편 ACC슈퍼클래식 5번째 무대는 여름철을 건너뛰어 오는 9월 6일 린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자 콘서트로 마련된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1899-5566. /이연수 기자

전쟁없는 한반도 후대에 물려주자

평화·통일 기원 '나라사랑 통일 음악회 노래자랑'

15일 상무시민공원 야외특설무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광주시 서구회(회장 최중현)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2019 나라사랑 통일음악회'를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상무시민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펼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평화로운 새로운 미래, 전쟁없는 한반도를 후대에 물려주자'는 취지를 담아 통일 음악회 노래자랑 대회를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서구지회와 공동 주최하고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광주시회, 광주광역시평화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광주지부, 일등방송이 후원한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광주서구회 최중현 회장은 "대회를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과 사명으로 평화통일 염원의 물결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부동산 투자!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선규 H.010-3605-5000